

하박국 1 장 5 - 11 절 : 주님의 대답

5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6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8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9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10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흠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11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 하박국 1 장 4 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호소/질문이었는데 5 절부터 11 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질겁할' 일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대 나라의 불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악한 바빌로니아를 불러 들여서 이스라엘을 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 기도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13 장 41 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박국 1 장 5 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부터 일어날 놀랍고 질겁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바빌로니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 독립된 나라로 부강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고,
 - 앗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페허가 되다시피 합니다 (주전 612 년).
 - 이집트도 전쟁에서 패하고 힘을 잃습니다

- 바빌로니아는 주전 626 년에 앗시리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빠르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그들은 앗시리아,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주전 605 년). 그런 정복과정을 주도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빌로니아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6 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납고 성급하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민족 (6 절)
 -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두렵고 무서운 민족 (7 절)
 - 전쟁에 능한 전투적인 민족 (8 절, 10 절)
 - 폭력을 앞세우고 포로를 잡아가는 민족 (9 절)
 - 자신들의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민족 (11 절)
- 8 절에서 보이는 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기마병을 사용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바람에 상대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빌로니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중의 하나가 날쌔 속도였습니다.
- 9 절에서 언급되는 전쟁 포로를 잡아가는 정책은 앗시리아가 점령지 민족들의 사기를 꺾고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인데, 바빌로니아도 그대로 모방하였습니다.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70 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 10 절에 나오는 '흙언덕을 쌓아서' 라는 말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성벽 바깥쪽에 흙을 쌓고 공격을 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11 절에서 '힘' 이란 단어는 삼손의 힘같이 육체적 힘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군사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빌로니아 민족은 그들의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그들의 군사력이 신의 위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1 절 후반부는 자신들의 힘을 자신하는 바빌로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 그들이 심판 받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쟁 기술들을 믿고 과격하게 행동한 민족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